



USDA Oil Crops Outlook, 2013. 3.12.

## 생산 감소를 앞두고 대두박, 대두유 가격 보합세

USDA는 2012/13 대두박 수출량과 수입량 전망을 전월대비 10만 쏙톤씩 증가한 890만 쏙톤과 35만 쏙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012/13 대두유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48.5~51.5센트, 대두박은 쏙톤당 425~445달러로 전망했다.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은 1월~2월 기간동안 대두작황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달 5,150만톤에서 150만톤 하향 조정되었다. 게다가 2012/13 아르헨티나 대두가공품 생산량 감소로 인해 대두박 수출량은 100만 톤 감소한 2,7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유사하게 공급량 감소로 인해 아르헨티나 대두유 수출량은 전월대비 20만 톤 감소한 395만 톤으로 전망된다.

## Domestic Outlook

### 대두박, 대두유 가격 하락으로 대두 가공품 생산속도 둔화될 듯

미국 대두가공공장의 현물가격 수준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현재 대두 수요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곧 대두가공품 생산마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에 대두박, 대두유의 현물 가격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선물 가격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대두유의 선물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대두유가격은 동남아시아 팜유 과잉과 남미산 대두가 많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해외시장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2/13 1/4분기 바이오디젤 수요가 전년수준의 절반을 보임에 따라 미국 내 대두유 수요 역시 감소하였다. 또한 2013년 가을, 미국 대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기록적인 수준이 될 가능성 있음) 대두 원월물 선물가격 또한 하락압력을 받고 있다.

이번달 USDA는 2012/13 대두유 평균가격 전망을 49~53센트에서 파운드당 48.5~51.5센트로 조정하였다. 대두박의 경우, 2012/13 평균가격은 지난달 430~460달러에서 숏톤당 425~445달러로 하향 조정하였다.

동시에 대두가공품 생산비용은 브라질의 선적지연 그리고 지속되는 미국의 낮은 재고수준이 기업들을 머물게 했다. 심지어 이번 시즌의 낮은 대두 공급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누적 대두가공품 생산량은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전기(the period ahead)에서 심각한 대두 재고의 배분을 요구할 것이므로 피할 수 없이 2월~8월까지의 대두가공품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USDA는 이번달 2012/13년 누적 대두가공품 생산량을 변동없이 16억 1,500만 부셸일 것으로 전망했다.

몇 달 동안 미국 대두박 공급량은 남미로부터의 거래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부분을 채우고 있었다. 2월 28일까지, 미국 대두박 수출 거래건수는 2009/10년 추이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월 미국 대두박 수출은 월 기준 역대 최고로 166만 숏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새 수출계약은 일단 국내 대두박 생산량이 떨어지고 외국과의 경쟁이 가열되면 한없이 지속될 수는 없다. 미국 대두박 재고는 이미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6개월 이후 추수까지 국내 시장을 지탱해야 한다. 올봄 대두박의 추가적인 수출계약은 여름까지 국내 시장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 브라질 대두박의 선적 지연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뜻밖에 대량의 대두박 수입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 달 USDA는 대두박 수출량과 수입량 전망을 10만 숏톤 올려 각각 890만 그리고 35만 톤으로 전망했다.

2월 브라질 대두 수출량의 소폭 증가는 미국선적 추이를 늦출 만큼 충분히 빠르지 않다. 비록 미국 대두 선적이 전형적인 계절감소추세에 들어갔지만(2월 수출 검사량은 1월 1억 9,400만 부셸에서 1억 4,000만 부셸로 줄어들었음) 추이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수출 시장의 활력은 미국 항구에서의 강한 현금 베이스로 알 수 있지만, 그 지표 역시 국내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 USDA 2012/13년도 전망은 지난달과 변함없이 13억 4500만 부셸이다. 2012/13년 대두박 기말 재고량 역시 변동 없이 1억 2,500만 부셸이다.

### 2013년 상반기, 건조한 기후로 아르헨티나 대두 단수 악화

USDA는 이달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을 150만 톤 하향한 5,150만 톤으로 전망했다(수확면적이 1,935만 헥타르로 예상됨).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업지역은 뜨겁고 건조하였다. 건조한 기후가 진행되는 동안 작물의 스트레스는 아마 이미 첫 번째 작물인 대두 단수의 잠재력을 조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2-3주 동안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비로 인해 대두의 성장조건은 넓은 지역에 걸쳐 안정화 되었다. 최근 강우량은 겨울밀 수확 후 심어지는 이모작(double cropped) 대두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 4월로 들어가는 최근의 날씨 패턴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대두 작황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대두 수확의 전망치 감소는 대두 가공품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 듯 하다. 현재까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누적된 대두가공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340만 톤(29%) 줄어들었다. 아르헨티나 가공공장은 신곡이 추수되면 가속화 될 것이지만 USDA는 이번 달 2012/13년 대두가공품 생산량을 130만 톤 낮춘 3,600만 톤으로 전망했다. 만약 현실화 된다면 이는 2011/12년 3,590만 톤보다 높은 2번째로 낮은 수준이 된다.

대두박과 대두유의 총체적인 생산량 감소는 두 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번달 2012/13년 아르헨티나 대두박 수출 전망은 100만 톤 줄어든 2,700만 톤이다. 비슷하게 대두유 수출도 낮은 공급으로 인해 20만 톤 줄어든 395만 톤으로 전망된다.